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5. 27.(수) 17시

“한인회, 연대와 조직화로 동포사회 중심돼야”

- “갈등 해결의 출발은 이해관계자간 소통...제정 운영규정도 단계적 활용”
- “모국과 700만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핵심 축은 한인회”

-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5월 27일(수)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‘한인회가 나아갈 길’을 주제로 강연했다.
 - 김 청장은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주최한 대륙별 회장단 초청 역량 강화 세미나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했다. 이날 행사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 고상구 회장을 비롯해 미주·아시아·중남미 등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했다.
- 이번 강연은 김 청장의 재외동포청장 취임 이후 첫 공식 강연으로, 전 세계 한인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.
 - 김 청장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강연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.
- 김 청장은 “한인회장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한인회가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”는 감사 인사로 강연을 시작했다.
 - 이어, “재외동포들은 수출시장 등 경제영토의 개척자이자 한류의 전파자로서 모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.”면서 동포들의 기여를 설명했다.
 -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이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힘쓰고,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.
 - 특히, 이를 위해서는 동포의 역량을 한 데에 모으는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, 그 근간이 바로 ‘한인회’임을 강조했다.

○ 이에 더해, 김 청장은 “한인회 발전을 위해서는 **한인회 내·외부의 분쟁을 대화와 연대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**”고 말했다.

- 특히, 과거 부천 지역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전국 최초의 지역 노사정 협의회(노동자-사용자-정부간 대화 협의체)를 결성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“**갈등 해결의 단초는 이해관계자간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**”고 설명했다.

-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은 지난 2월 제정된 ‘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’에 따라 대륙별 총연합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.

○ 아울러, 김 청장은 “정관은 조직의 헌법과 같다”며 “**체계적인 규정 마련과 원칙있는 운영이 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**”이라고 강조했다.

- **한인회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인회 활동에 참여할 것**이라고 하고, 재외동포청 차원에서도 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이번 강연은 재외동포청 공식 유튜브 채널 ‘동포ON’에 6월 중 게재될 예정이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한인회장들의 노력과 헌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, 세계 각지의 한인회와 긴밀히 소통을 해나갈 것이다.

붙임 : 행사사진 3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 이정한 (032-585-3195)
		담당자	서기관 정다비 (032-585-3200)